

인 사 말

오늘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고찰 히에산 엔라쿠지(比叡山 延暦寺)에서 개최되는 제 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그동안 불교를 통한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을 도모
함은 물론 불교문화 교류와 학술 교류
활동으로 양국 불교 진흥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로 31회를 맞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아픈 과거사를
간직한 양국 불교도와 국민들의 우호와
선린을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
습니다.**

**지난 30회 대회에서는 불운했던
과거역사에 대한 일본 불교계의 참회와
사과를 담은 기념비를 한국의 신록사에**

**건립하여 양국간 올바른 역사관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확인시켜 주었
습니다.**

**한·일 불교도의 이와 같은 노력은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지만, 돌이
켜보면 양국의 불교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류의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성왕이 불상과 경전을 보내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고 하고 있으며 신라와
고구려의 승려들도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 히에이산(比叡山)에 불멸의
등불을 밝힌 전교대사(傳敎大師) 사이초
(最澄)스님의 제자인 자각대사(慈覺大師)
엔닌(圓仁)스님은 입당구법순례행기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신라의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불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귀로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곳 연력사(延曆寺)에 청해진대사
장보고비(淸海鎮大使 張保臯碑)가 건립되어
있는 것도 한일 불교의 천년이 넘는**

**우호 선린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항상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 위주의 개발과 환경 파괴는 이제
거듭되는 자연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세계를
향해 한·일 양국의 불자들은 상생과
화합,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평화 속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세계평화기원법회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의 주제를 ‘양국
불교를 배우다’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국 불교가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세계 속의 불교로 발전시
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대회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연대
사업과 학술, 문화 교류가 활발해
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대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미야바야시 쇼겐(宮林 昭彦)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이곳 연력사(延曆寺)
에서 훌륭한 법연을 베풀어주신 천태종의
오까 준고오(阿 純考) 종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慈乘